

신지애 '지존 샷'

웨그먼스LPGA 3라운드 16언더파 4타차 단독선두... '멀티플 위너' 눈앞

〈시즌 2승이상 우승자〉

시즌 신지애(21·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2승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신지애는 2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로커스트리힐 골프장(파72·6천 365야드)에서 열린 웨그먼스LPGA 3라운드에서 보이는 1개로 막고 버디 6개를 쏟아내 5언더파 67타를 찍어냈다.

사흘 동안 60대 타수를 치는 맹타를 휘두른 신지애는 중간합계 16언더파 200타로 2위 모건 프레셀(미국·12언더파 204타)을 4타차로 따돌리고 지난 3월 HSBC위민스 챔피언스 대회 우승 이후 다시 정상에 오를 기회를 잡았다. 신지애가 마지막 라운드에도 선두를 지키면 올 시즌 한국 군단 중 가장 먼저 '멀티플 위너'(시즌 2승 이상 우승자)로 이름을 올린다.

전반에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맞바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신지애는 후반에 5개의 버디를 쏟아내는 뒷심을 발휘하며 추격자들과 격차를 벌려 놓았다.

1번홀(파4)에서 6번 아이언을 친 두번째 샷을 홈 앞 3m에 떨어뜨려 첫번째 버디를 잡은 신지애는 6번홀(파4)에서 티샷을 러프에 빠뜨려 1타를 잃었다.

하지만 10번홀(파4)에서 3번 우드로 친 두번째 샷을 그린 위에 올려 가볍게 1타를 줄인 신지애는 정교한 아이언샷으

로 타수를 줄여 나갔다.

신지애는 공식 인터뷰에서 "전반에는 긴장이 돼 몇차례 실수가 나왔지만 후반부터 자신감이 생겼다"며 "최근 대회에서 기복이 심했는데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오늘의 샷 감각을 살려 우승컵을 차지하겠다"고 말했다.

3타를 줄인 유선영(23·휴온스)이 6위(9언더파 207타)에 올랐고 강혜지(19)도 7언더파 65타를 때려내며 재미교포 민디 김(20)과 함께 공동 7위(8언더파 208타)에 자리를 잡았다. 전날 상위권에 올랐던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3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공동 21위(4언더파 212타)로 떨어져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한편 골프왕제 타이거 우즈의 조카 사이언 우즈(미국)는 악천후 때문에 사흘동안 치러진 1, 2라운드에서 5오버파 149타를 찍어내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작년 대회 우승자 지은희(23·힐라코리아)도 1라운드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합계 7오버파 151타로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신지애가 2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 로커스트리힐 골프장에서 열린 웨그먼스LPGA 3라운드 4번 홀에서 드라이버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진

노병은 죽지 않았다

11개월만에 1승 신고, 통산 98승... KIA, 히어로즈에 5대1 쾌승



돌아온 이대진, 98승을 만들었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히어로즈와의 시즌 11차전에서 이대진을 필두로 한 마운드의 호투 속에 5-1로 승리했다.

지난 5월2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1군 무대에 출격했던 이대진은 5이닝 2피안타 1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의 투구로 2008년 7월19일 이후 11개월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통산 100승에는 2승만을 남겨두게 됐다.

타선의 최고참 이종범은 1회초 2루타를 터트리면서 통산 4번째로 300 2루타의 기록을 달성했다.

1회 KIA가 먼저 점수를 뽑았다. 이종범의 2루타로 1사 2루, 이재주의 우익수 플라이 때 3루까지 진투한 이종범이 최희섭의 적시타로 홈을 밟으며 1-0을 만들었다.

1점의 리드에서 이대진은 노련미를 앞세운 정확한 제구로 4개의 삼진을 솟아내며 상대 타선을 묶었다. 직구 구속은 140km를 기록했다.

1-0의 1점차의 박빙의 리드가 이어지던 6회부터는 광정철이 마운드를 넘겨받았다.

광정철은 첫 타자 김일경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도루를 허용하면서 무사 2루의 위기에 몰렸지만, 클락을 2루수 앞 땅볼로 요리하며 원아웃을 만들었다. 황재권의 땅볼은 직접 잡아 처리하면서 투 아웃, 이택근의 볼넷으로 2사 1·3루, 이번에는 홈런 타자 브룸바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이닝을 마무리했다.

7회말 김상현의 중전안타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선두타자가 출루했지만 땅볼 2개로

2사 3루가 됐다.

추가점을 내기 위해 대타 홍세안이 투입됐고, 3루수 황재권이 공을 놓치면서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2-0이 됐다.

8회초 히어로즈가 이택근의 1타점 적시타로 다시 1점차로 추격했지만 8회말 KIA의 뒷심이 발휘됐다.

이택근과 안치홍의 연속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3루, 이종범의 유격수 앞 땅볼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며 3-1

이재주가 땅볼로 물러났으나 최희섭이 고의사구로 나간 뒤 박기남이 마저 볼넷을 골라내며 2사 만루가 됐다. 이번에는 김상훈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KIA는 5-1로 달아났다.

마무리로 투입된 유동훈은 9회를 삼자 범퇴로 막으며 이대진의 승리를 지켜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앤서니 김 5타차 뒤집는다

PGA 트래블러스 3R 공동 9위로 선두 추격

올 시즌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던 재미교포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선두 추격에 나섰다.

앤서니 김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의 리버 하이랜드 TPC(파70·6천841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악천후 때문에 경기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3언더파 67타를 찍어냈다. 2라운드에서 4언더파 66타를 치며 상위권에 뛰어오른 앤서니 김은 중간합계 11언더파 199타로 공동 9위에 올라 선두 폴 고이도스(미국·16언더파 194타)에 5타차로 따라 붙었다.

앤서니 김은 세차례 보기를 기록했지만 6개의 버디를 잡아내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이어나갔다.

티샷의 정확도는 떨어졌지만 그린 적중시 평균 퍼트수 1.6개가 말해주는 듯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타수를 줄여나가는 집중력이 돋보였다.

상위권 진입을 노렸던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는 1타를 잃어버려 중간합계 5언더파 205타로 공동 48위까지 밀렸고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도 타수를 줄이지 못해 공동 55위(4언더파 206타)에 머물렀다. 8오버파 148타를 찍어낸 이진명(19·캘리웨이)은 컷을 통과하지 못했고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과 오승준(27)은 가련했다. 연합뉴스



앤서니 김이 28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 리버 하이랜드 TPC에서 열린 PGA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3라운드 첫 번째 홀에서 그린을 향해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펠레그리니 세계新

여자 자유형 400m... 4분00초66

페데리카 펠레그리니(21·이탈리아)가 여자 자유형 400m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신 기록이 쏟아지고 있다.

펠레그리니는 2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페스카라에서 열린 지중해게임 수영 여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4분00초41에 레이스를 끝내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 잭슨(잉글랜드)이 지난 3월 영국선수권대회에서 세운 종전 최고 기록 4분00초66을 0.25초 앞당겼다.

잭슨은 당시 영국선수권대회에서 펠레그리니가 갖고 있던 세계 기록 4분01초53을 1초 가량 단축했다.

하지만 여자 자유형 200m에서도 세계 기록을 가진 펠레그리니는 3개월여 만에 다시 두 개의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됐다.

펠레그리니는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 자유형 200m에서 1분



54초82의 세계 기록으로 금메달을 땀다.

펠레그리니는 지난 3월 이탈리아선수권대회 여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54초47로 세계 기록을 또 깼지만 국제수영연맹(FINA)이 공인을 유보한 상태다.

한편 베이징올림픽 2관왕(여자 자유형 50m, 100m)인 브리타 슈테판(26·독일)은 여자 자유형 100m에서 이틀 만에 세계 기록을 새로 썼다. 슈테판은 27일 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선수권대회 여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52초56에 터치패드를 찍어 자신이 이틀 전 예선에서 작성한 세계 기록 52초85를 다시 0.29초 줄였다. 연합뉴스

이승엽 완벽 부활... 3일 연속 홈런포

이승엽(33·요미우리 자이언츠)이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렸다.

이승엽은 28일 도쿄돔에서 계속된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홈경기에서 1루수 겸 7번 타자로 선발 출장, 6회말 1사 1, 3루에서 상대 선발 이시카와 마사노리의 직구를 받아쳐 오른쪽 펜스를 넘겼다.

초구 슬라이더를 스트라이크로 흘려보낸 이승엽은 볼카운트 2-2에서 시속 136km짜리

느린 직구를 놓치지 않았다. 시원하게 방망이를 휘둘렀고 비거리 110m짜리 홈런으로 연결됐다. 시즌 15호로 팀 승리에 해기를 박는 3점짜리 홈런이었다.

이승엽은 2-0으로 앞선 2회 말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시속 86km짜리 느린 커브를 받아쳐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하지만 이어진 기무라 다쿠야의 공격 때 투수 견제에 걸려 아쉬움을 됐다. 연합뉴스

4회 말 무사 주자 1루에서 2루수 앞 내야 땅볼로 물러난 이승엽은 8회에는 두산에서 뛰었던 이해찬과 맞대결을 펼쳤지만 3구 삼진으로 돌아섰다. 4타수 2안타를 작성해 타율은 0.249로 조금 높아졌다.

이승엽은 "1, 3루에서 외야 플라이를 친다는 생각으로 때렸는데 승부를 결정짓는 홈런이 돼 기분이 좋다"며 "(컨디션이) 좋아지는 상태이며 다른 선수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잘해주면 팀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3경기 연속으로 홈런을 친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 3경기 연속 안타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연합뉴스